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삶과 경험*

손 연 아¹⁾

손 은 령²⁾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이야기로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의 삶과 경험은 무엇이며 그 경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인 연구의 방법 중 어머니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이해하게 하는 내러티브 탐구를 하였다. 이에 청소년 자녀가 학교를 떠난 한 어머니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안내하고 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아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삶을 이야기하고, 경험을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주제들 간의 연계성을 찾아 다시 재구성 하였다. 재구성 된 이야기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삶을 조망하는 내러티브 경험으로 상황과 삶 전체의 맥락에서 성찰-반성-성장의 경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기성찰에 의한 깨달음’, ‘반성적 사고를 통한 개선’, ‘경험의 연속선상에서의 성장’의 의미가 도출되었다. 이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전체 삶의 경험을 조명하여 부모 또는 보호자 대상의 상담과 부모 및 가족생활 관계의 교육 등이 이루어지도록 법적제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노기호, 2014)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인 개입 못지않게 진로 개입도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학교를 떠난 청소년, 내러티브 탐구, 경험, 자기성찰, 성장

* 이 논문은 손연아의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7)을 일부 수정한 것임.

1)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2) 교신저자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mail: soner@cnu.ac.kr)

I. 서 론

우리사회에서는 대부분 ‘청소년’을 학령기의 학생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학생의 신분이 아닌 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문제아이자 비행청소년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 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실패감과 좌절을 경험하기 쉽기(김영희, 최보영, 이인영, 2013)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예를 들어 위기청소년 안전망(CYS-Net), 해밀센터와 두드림존 프로그램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과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인 근거의 마련 및 운영 확대,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 가출이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등(노기호, 2014; 오승근, 2009)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2014년에는 학업중단 예방지원을 발표하고, 학업중단에 대해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총 340억 원의 예산지원을 대폭 늘려 대책을 마련하였다(교육부, 2014).

이와 같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 꾸준히 발생하는데다가 잠재적으로 학업중단을 원하는 청소년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4년 5월 28일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단일 법률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00호)을 제정하였고, 1년 후인 2015년 5월

29일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 노기호(2014)는 2014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가족, 특히 부모 또는 보호자 등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 조항이 부재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할 수 가 없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은 부모에게서 현실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모가 청소년의 보호와 지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에 있어 그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청소년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문제를 유발하게끔 하는 원인제공자로서의 위험요인인 동시에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유용한 보호요인으로서의 지지체계이기 때문이다(남미애, 2006). 이는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울타리 안으로 ‘당기는’ 보호행위와 자녀를 방치하거나 포기하는 등의 ‘무관심’ 행위 등의 가족해체, 가족 간 갈등, 가정폭력 등 자녀를 가정으로부터 ‘밀어내는’ 역기능적인 위험행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주연, 정세영, 2015). 이러한 이유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건강한 사

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대한 관심과 자각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는 것은 자녀와 부모에게 우울증과 좌절감, 불면증, 신체적 약화, 대인관계기피증 등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문제를 경험하게 한다. 특히 부모의 경우 자녀와의 갈등 심화(37.8%), 자녀지도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23.0%), 부부간의 관계 약화(15.7%), 친척이나 이웃과의 관계 단절 등 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경제적 활동의 변화를 가져왔다(남미애, 2006). 그러므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부모에게도 사회적 지지체계와 같은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 즉, 부모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김재엽, 장용언, 민지아, 2011).

이를 위하여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 중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하거나 양육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였고, 그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 즉 살아왔고, 살아가는 중이며 앞으로도 살아가야할 삶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가들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처음부터 어머니는 아니었으며, 누군가의 자녀로 양육되어진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며 경험함으로써 얻어진 사고와 가치관 등이 자신이 어머니가 되었을 때 자녀를 가르치고 보호하는 양육의 태도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학교를 떠난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삶을 살아오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이 학교를 떠난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소통 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어떻게 자녀와의 관계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어머니의 삶의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즉 부모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 중 양육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살아온 삶의 경험 이야기를 통해 이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 이면의 심층적 구조와 과정을 밝힐 뿐 아니라, 이를 총체적이고 체험적으로 공감하고자 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러티브로 탐구하고자 하였다(조용환, 1999). 내러티브탐구는 삶을 내러티브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내러티브의 입장에서 삶을 이해하고자 한다(염지숙, 2003).

이에 본 연구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의 이야기이며 자기이야기로서 그 경험을 이해하고, 그 삶의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내러티브로 탐구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1>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삶과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 질문 2>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삶과 경험의 의미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 방법으로서의 내러티브인 동시에 연구 현상으로서의 내러티브로서(염지숙, 2003; Clandinin 2007) 체험되고 말해진 이야기에 표현된 경험에서 시작되며, 다른 사람 및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경험의 재구성과 관련되어(Clandinin & Connelly, 2000)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조각들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조망하는 내러티브가 된다(염지숙, 2002, 2003). 이와 같이 내러티브 탐구자들은 개인의 경험을 연구한다.

경험은 다른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며, 경험이 또 다른 경험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그 연속선상, 즉 상상된 현재, 상상된 과거, 또는 상상된 미래의 어느 지점에 위치시키든, 각 지점은 과거의 경험에 토대를 지니고 있는 미래의 경험을 이끌어낸다(Clandinin, 2007).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토대로 한 관계적 탐구이며 시간성, 사회성, 장소라는 3차원적 탐구공간에서 안과 밖, 앞과 뒤의 네 방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의 경험을 경험하는 것이다. 즉, 경험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다(류소영, 2014).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의 경험뿐 아니라 개인의 경험들이 구성되고, 형성되며, 표현되고, 실행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내러티브들에 초점을 맞추며, 세상에서의 개인의 경험, 삶에서 이야기되는 경험을 연구하며, 그러한 경험

을 듣고, 관찰하고, 또 다른 이와 함께 살아가고, 텍스트를 쓰고 해석함으로써 연구될 수 있다(Clandinin, 2007). 즉 삶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경험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삶에서 살아지고, 또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경험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인간의 삶의 경험 이야기를 연구한다.

이에 연구자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삶의 경험을 3차원적인 탐구 공간에서 어머니가 자라면서 경험한 양육자와의 관계에서부터 결혼과 자녀 출산 및 양육 등 지금까지의 시간성을 인식하면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 직장 등의 공간에서 어머니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내러티브 탐구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 내러티브 탐구 과정

본 연구는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내러티브 탐구과정에 따라 현장으로 들어가기, 현장텍스트 구성하기, 연구텍스트 작성하기로 진행하였다. 이 단계는 명확히 구분되기보다는 단계와 단계 사이가 겹치기도 하고 중복되기도 한다(염지숙, 2003).

현장으로 들어가기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이 단계에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관심분야와 그 관심을 성찰하여 자서전적 경험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연구자 자신의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를 구성하며 자신의 탐구를 시작하는 것이다.

연구자의 경험이야기. 연구자는 아들과 딸을 두고 있는 어머니다. 아들과 딸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된 경험이 있다. 그 중 가장 어려웠던 상황은 아들의 야간자율학습 퇴출 경험이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한 달 반 정도가 되었을 즈음, 그제야 반 아이들과 말도 하며 어울리게 되었던 아들은 그날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아이들과 떠들었고, 야간자율학습 감독 선생님께 걸렸다. “떠든 사람 나와”라는 자율학습 감독 선생님 말씀에 아들만 나갔다. 자율학습 감독 선생님은 아들을 뒤돌아서게 해서 엉덩이를 때리고 교실 뒤에 서있게 했다. 자율학습 1교시가 끝난 후 자리로 돌아온 아들은 책상에 엎드렸고, 2교시가 시작되었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아들의 행동에 대한 감독 선생님의 지적에 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었지만 들어주시지 않고, 야간자율학습에서 퇴출했다. 퇴출당한 아들은 내가 데리러 오는 10시까지 30분 이상을 어두운 운동장에서 ‘죽음’, ‘억울함’, ‘분노’ 등의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있었다.

내가 10시에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차 문을 열고 타는 아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보였다. ‘괜찮나?’ 나의 물음에 아들은 화를 누르며 퇴출당한 이야기를 했다. 이후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은 아들, 학교를 옮기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다. 먼저 담임 선생님을 만나 상담을 했고, 담임 선생님은 아들을 불러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나는 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아들의 학교생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렇게 한 학

년이 지나갔다. 그러는 중에 아들에게 몇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들도 학교를 나가는 그 학생들 중 한 명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

연구자는 이전에도 선생님과의 갈등으로 학교를 가지 않으려는 딸과의 경험이 있었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때도 선생님과 이야기를 했고, 도움을 부탁드렸었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한 딸은 선생님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학교를 가지 않겠다는 마음을 바꾸었었다. 이 경험은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말한 시간의 연속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지금의 경험이 이후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시간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자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있어서, 이전의 삶의 경험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던 것이다.

이는 박사과정 중 수업시간에 토론하였던 2012년 개봉한 강이관 감독의 ‘범죄소년’과 EBS에서 2014년 방송된 ‘교육의 길을 묻다(5부작)’를 보면서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는 것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과 청소년 자녀와 부모관계의 질은 갈등상황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간접경험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연구자의 자녀가 학교를 떠나는 것에 대해 고민할 때 관심과 사랑으로 자녀를 이해하고, 진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렇듯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제안한 연구자의 경험이야기는 현재의 입장을 형성하게 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는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사회적인 것으로, 삶의 이야기를 살아가고, 말하고, 다시 말하고, 다시 살아가는 순환적인 관계에 있는 삶의 이야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장과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있다. 이에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성과 충분함(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류소영, 2014에서 재인용)에 따라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학교를 떠난 후의 경험과 지금은 어떠한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며, 학교를 떠난 청소년 자녀와 그 후 어떠한 과정을 지나 지금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어머니로 정하였다.

이러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만나기 위해 연구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였다. 연구자가 센터의 방문목적 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였고,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일을 하게 된 것도 학교 밖 청소년인 자녀의 영향이 컸다고 하면서 연구자의 연구주제 및 목적을 지지해 주었다.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에 참여자가 될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하면서 연구의 참여자가 되었다. 그 후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연구의 상황, 환경의 변화를 연구목적에 따라 동의를 구하며 재협의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40대 중후반

으로 1남 1녀의 장녀로 태어났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가족이 모두 헤어졌다. 그 후 큰 절에서 자란 연구 참여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운동권에 연루되어 자퇴를 하였고, 이 일로 절에서 나오게 되었다. 절에서 나온 후 친구가 일하는 공장에서 6개월을 일하다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야학을 찾아가서 공부를 하였고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받았다. 그 후 야학선생님의 권유로 야학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교사로 봉사하였고, 야학에서 교육 봉사활동을 하던 23살 남편과 20살에 결혼을 하고 2남 1녀의 엄마가 되었지만 남편의 가정폭력과 외도, 사업실패 등을 겪으면서 이혼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왔다. 몇 년이 지나 전남편이 재혼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친권을 가지고 있던 전남편은 아이들을 데려 갔다. 혼자 남은 연구 참여자는 야학에서 교사로 봉사하며 살아가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하여 새 가정을 이루었고, 남매를 낳았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구 참여자와 함께 야학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한편, 전남편과 지내던 아이들 중 둘째가 가정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엄마인 연구 참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급박하고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연구 참여자는 재혼한 남편의 지지를 받아 학교를 떠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된 둘째와 함께 생활하면서 갈등과 성장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지금 둘째는 전 남편과 지내면서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장텍스트 구성하기

이 단계는 현장에 들어가서 자료를 수집하며 현장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계다.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로 관찰과 참여, 면담으로 이루어 졌다. 이후 3월과 4월에 동료 검증과 연구 참여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 면담 자료와 연구자의 현장관찰이나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자조모임을 결성하기 위한 참여를 토대로 한 현장노트가 있다.

관찰은 학교 밖 청소년과 부모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자료로서 수집되었다. 연구자는 센터를 방문 할 때마다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5시간 정도 머물렀고, 약 10회 이상 이루어졌다. 관찰과 참여로 작성된 현장노트는 연구자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Clandinin & Connelly, 2000), 전화나 문자로 실무자와 주고 받은 내용도 포함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관점과 생활세계, 의식, 주관성,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심층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료수집방법이다(김영천, 2012).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친밀감을 쌓아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연구 참여자가 일상적인 삶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의 주된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과거와 현재에 해당하는 삶의 경험인 원 가족과의 관계, 결혼 및 가족관계, 사회생활경험,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학교 밖 경험 등이 어떠한가에 관한 것이다. 면담은 연구목적과 주제에 대해 미리 충분히 대화가 된 후에 인터뷰 형식으로 1회 약 3시간 녹음하였고, 센터에 방

문할 때마다 10회 이상 녹음 없이 편안한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 이야기를 들으며 이루어졌다. 녹음을 하지 않은 이야기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와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이자 센터의 관계자로서 일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를 연구자는 집에 돌아와 정리하였다. 정리된 내용은 A4용지 10페이지 분량이었다. 녹음한 이야기는 연구 참여자의 삶의 경험이야기로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하였고, 녹음된 내용 그대로 전사하였다. 전사된 분량은 A4용지 26페이지이다.

연구텍스트 작성하기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는 단계는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들이 해석적인 과정을 거쳐 경험에 대한 의미 만들기를 하는 과정이자 본격적인 글쓰기로서 3차원의 탐구공간에서 이뤄진 경험을 드러내는 재구성된 내러티브를 쓰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연구의 목적과 주제의 의미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과 더불어 연구가 누구를 위해 쓰여 지고 있고 그들에게 어떤 자각과 의미를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Clandinin & Connelly, 2000).

본 연구의 연구자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 어머니의 삶에 대한 경험 이야기를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자료와 현장노트 등의 수집된 자료를 읽고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환경 내에서 혹은 이를 통괄하는 주제, 긴장, 내러티브 줄거리, 패턴을 찾으면서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며 의미를 찾아(Clandinin & Connelly, 2000) 재구성 하였다.

재구성된 이야기 조각들은 ‘고립’, ‘학교

밖, '야학', '가족', '헤어짐', '깨달음', '좋은 사람', '만남', '무책임', '죄인', '한마디', '판결', '습관', '대면', '시선', '포기'였다. 이어 면담자료·현장노트와 재구성된 이야기 조각들의 통합적인 주제를 찾아 이를 토대로 '가족 이야기', '학교 밖 이야기', '성장이야기', '바람(wish)이야기'로 경험의 의미가 도출되었다.

도출되었던 의미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삶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읽고, 다시 읽기를 반복하여 3차원적 탐구 공간에서의 경험으로 재구성한 '자기성찰에 의한 깨달음', '반성적 사고를 통한 개선', '경험의 연속선상에서의 성장'이다.

3. 연구의 타당성

Creswell(2007)은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 작업을 위해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적어도 '타당성 전략' 중 두 가지 이상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Creswell,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Creswell(2007)이 제시한 '타당성 전략' 중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관찰, 복합적이고 다양한 자료원, 동료 검토, 연구자의 편견 명확히 하기, 참여자확인 등의 타당도 작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 현장에서 연구 참여자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한 모든 시간이 신뢰할 만한 자료를 만들듯이(Glesne, 2006) 연구자는 처음 현장을 찾아가 대화를 시작한 이후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을 주기적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 참여자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여 신뢰감을 쌓았다.

둘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자료와 함께 연구 참여자와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현장의 관리자 등과 친숙해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잦은 현장 방문, 연구 참여자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어머니 병문안 참여, 연구 참여자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과의 식사, 현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과 간식을 함께 하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센터에서 진행되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관찰과 학교 밖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자조모임 기획에 동참하였고, 현장 관계자의 채용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자료 원으로부터 근거를 확인하는 다원화(triangulation)의 노력을 기울여 자료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셋째, 외부 점검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자료의 분석과정과 의미 도출에서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교수 1인에게 전화나 메일로 지도를 받았고,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전공의 박사과정생 1인, 박사수료생 1인인 동료 연구자들과 2번의 동료 검토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를 부정적으로 드러낼 것 같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는 축소하였고, 긍정적으로 보여 지는 삶의 경험에 주목하여 과장되게 기술하는 것 같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연구 참여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대한 관심과 연구 참여자의 불행했던 가정사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으므로 연구 참여자를 보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에 대해 축소되거나 과장되게 연구 텍스트를 쓰려는 충동이 있었던 것으로 Clandinin과 Connelly(2000)

가 말하는 형식주의적 경계에서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연구자는 동료 검토의 과정을 통해 형식주의적 경계에서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는 것에서 연구 참여자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된 방법 그대로 드러내는 형식으로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넷째, 연구자의 편견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에 접근하고 해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자의 과거 경험, 편견이나 지향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Creswell, 2007).

다섯째, 연구자가 도출한 임의적 분석과 결론이 과연 맞는다고 할 수 있는지를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이다(김영천, 2012).

참여자 확인(member check)은 연구 참여자에게 되돌아가 자료를 구하고, 분석하며, 해석하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연구의 참여자가 이야기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Creswell, 2007) 이에 연구자는 연구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잠정적인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여 연구 참여자의 확인을 받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연구 텍스트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4.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의 시작부터 진행되는 과정 내내 지속적으로 연구의 윤리에 대해 고민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복지와 안녕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먼저 연구자의 연구가 현장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미리 전화로 방문 약속을 잡고 현장에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안내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에게는 연구의 목적을 안내하고, 비밀보장, 연구

과정 중에 면담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면담 시 녹음에 관한 내용, 추후 재면담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한 뒤에 연구에 참여한다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연구 참여자의 신변정보를 담고 있는 질적 자료인 면담자료(녹음파일, 녹취록), 현장노트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직접 주의하여 관리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나아가 연구 참여자가 노출될만한 어떤 것도(구체적인 나이, 지역, 직장명 등)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아 연구 참여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텍스트를 작성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삶과 경험이야기

본 장에서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삶과 경험이야기를 3차원적인 내러티브 탐구공간에서 상호작용의 개념을 따라 안과 밖, 뒤와 앞의 네 가지방향에 초점을 두고, “1인칭 이야기” 형식으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여 재구성 하였다. 그 이유는 1인칭 이야기는 연구 참여자뿐만 아니라 연구자에게도 목소리를 제공해주며 우리 또는 타인의 이분법적 구분을 타파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의 목소리가 더욱 의미 있게 살아있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Clandinin, 2007).

연구자는 현장텍스트를 연대기적으로 또는 요약된 설명으로 구성하기 위해 읽고 또 읽어, 내러티브하게 코딩하였다. 코딩은 3차원적인 탐구공간에서 주제에 따라 각각의 이야기로 기술하여 구성하였다. 그 후 이야기를 통괄하는 주제나 줄거리에서 패턴을 찾아 서로 연결하는 ‘가족이야기’, ‘학교 밖 이야기’, ‘성장이야기’, ‘바람(wish)이야기’로 재구성하였다.

가족이야기

고립. 연구 참여자는 어려서부터 친밀감과 애착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대상인 가족이 없는 정서적 고립상태였고, 그 후 공장에서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수용 받거나 가치 있게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고립 상태는 결혼해서 이루어진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지속되었고, 이혼을 통해 아이들과도 헤어져 혼자 남게 되면서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지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고립감은 연구 참여자가 결혼 후 자기주장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으며 생활하게 하였고, 주변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는 긴장과 불안, 공포, 부끄러움과 같은 비합리적인 감정을 경험하여 사회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허승희, 1993).

나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릴 때 노스님에게 맡겨져서 가족의 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랐다. 17살에 절에서 나와 공장에 다니며 기숙사에 머물 때 나는 잘 적응하지 못했고 혼자 고립되어 있음을 느

꼈다. 20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나는 처음으로 가족을 만났지만 그들은 한 번도 나와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다. 남편은 폭력과 외도, 사업실패 등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다. 시어머님과 남편의 이혼 요구에 끝까지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버텼지만 결국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세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결혼과 이혼 후 집을 나올 때까지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연구 참여자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려지고, 결혼해서는 남편과 시부모님께 외면당하며 물리적·심리적으로 고립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고립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는 건강하고 기능적인 가족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즉, 가족은 연구 참여자의 편이 되어주지도 않았고, 동반자로서 존중해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든든한 울타리라는 느낌조차 받지 못했던 것이다.

가족. 가족은 성숙한 두 인격체인 남녀가 만나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다(손영화, 2016). 연구 참여자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을 내가 책임져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결혼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가족생활주기는 Carter와 McGoldrick(1989)이 주장한 가족생활주기 중 다자녀가족의 가족생활주기였다가 이혼가족생활주기로, 다음은 재혼가족생활주기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가족생활주기의 첫 번째 단계인 결혼전에 해당하는 정서적 과업과 다음단계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

였다. 때문에 가족 형성에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는 부모님과 어려서 헤어졌기 때문에 정서적이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이 배제되었고,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상대자 또한 부모에게서 정서적·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아 의존하는 상태였다.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남편은 둘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부부관계를 불만족스럽게 했고, 음주 후 가정폭력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가족 형성을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결혼 적응기인 두 번째 단계 역시 단계에 따른 과업과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고 가정환경은 더 악화되어 갔다.

가족이 없었던 나는 유일한 가족이었던 남편으로 인한 폭력과 외도, 사업실패로 의논할 사람이 없었다. 그때의 나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다.

이렇듯 연구 참여자의 가족생활주기는 첫 단계부터 수행되지 못했다. 그것이 그 다음 단계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가족이 적응적인 발달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적응’은 가족생활주기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한재희 등, 2013)이다. 왜냐하면 가족이 일시적이거나 발달적인 긴장 상태에 대처하여 가족의 힘의 구조, 역할, 규칙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유연성의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정은, 2009). 즉 연구 참여자의 가족에게는 이러한 적응력이 현저히 떨어졌던 것이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내 인생을 해집어 놓은 시작이었다. 우리 부모가 나를 노스님에게 맡기신 것도, 남동생과 헤어지게 된 것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것도 모두 부모의 이혼 때문이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에게 이혼을 요구 하는 것이다. 참담했다.

연구 참여자의 가족을 전통적인 가족생활주기로 계속 이해하기에는 이혼으로 가정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Carter와 McGoldrick(1989)이 제시한 이혼가족의 생활주기로 연구 참여자의 가정환경을 이해하였다. 이혼가족의 생활주기 그 첫 번째 단계가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처럼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환경에 떠밀려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바람직하게 이혼을 결정하는 태도는 부부가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문제해결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결혼 실패에 대해 각자의 책임이 있음을 수용하는 것인데, 연구 참여자는 이러한 과정 없이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서 이혼을 결정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 단계에서 경험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나 발달상의 과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서적 이혼을 위한 노력이 결여되었던 것이다. 이혼에 대한 상처, 분노, 죄의식을 극복하기보다는 아이 셋과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기에 정작 이혼으로 인한 연구 참여자 본인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돌볼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때 재결합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하는 과업을 달성해야 하는데, 연구 참여자는 이혼가족의 가족생활주기의 발달과업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였기에 결과적으로 다음 단계에

영향을 주어 연구 참여자의 이혼가족 생활주기는 부정적으로 기능하였고 건강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혼은 안돼요. 이혼가정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내 아이들을 반듯한 가정에서 키우고 싶어요. 상황에 밀려 이혼하는 거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힘들어서 안돼요. 내가 어떻게든 아이들 데리고 잘 살게요. 이혼은 안돼요!” 라고 버텼는데…….

이혼 후 연구 참여자는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로서 살았다. 재정적인 책임을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모자원’에 들어가 지원을 받았다. 이곳에서 교육과 자립에 도움을 받으면서 연구 참여자는 세 아이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 연구 참여자의 희망을 위한 노력은 이혼으로 인해 세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위기를 초래(한재희 등, 2013)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양육을(주소희, 2015) 위해서다.

아이들이 자라온 환경들이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제 마음에 걸려서 내가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다. 그리고 모자원에서 나와 아이들은 미래를 향해 거북이처럼 느리겠지만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었다.

헤어짐. 연구 참여자는 전남편이 ‘재결합

을 원할 때 거절하지 못했다. 이는 재결합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하는 가족생활주기 발달상의 과제를 달성하지 못한 결과였다. 연구 참여자가 전남편을 받아들였던 것은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와 함께 살지 못했던 과거의 경험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는 연구 참여자의 착각이었다. 전남편은 연구 참여자와 세 자녀를 위해 정서적·물질적인 도움과 배려를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의존하려 하는 태도에(한재희 등, 2013) 연구 참여자는 절망하였다. 이러한 전남편의 변하지 않는 태도는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다시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연구 참여자에게 이전의 결혼 생활은 ‘지옥’과 같은 삶으로 이해되고 있어서 다.

“옛 정도 있는데.....너 없음 못 살겠다”고 하면서 전남편이 계속 찾아왔다. 어찌되었든 ‘애들 아빠고, 애들에게는 아빠의 그늘이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확인한 것은 ‘사람은 변하지 않지’였다. 그래서 전남편이 다시 합치자고 했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 전남편은 합치지 않겠다고 하니까 열이 받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나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들과 아무런 이야기도 나누지 못한 채 아이들과 헤어지게 되었다. 아이들은 그렇게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였고, 처음으로 가정을 이루어 가족으로 살았던 나는 그들과 헤어져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이혼의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와 전남편은 정서적인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이혼 과정은 이혼 당사자인 연구 참여자나 전남편뿐만 아니라 세 자녀들에게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쳤기에 정서적으로 건 강한 성장에 위기를 초래하였다(한재희 등, 2013).

부모의 이혼은 세 자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인 어머니를 상실하게 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 즉, 연구 참여자의 세 자녀도 어머니와 같이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충분한 애도 경험이 필요했지만(양혜원, 전명희, 김희수, 2014) 그 과정의 경험은 배제된 것이다.

좋은 사람. 연구 참여자는 이혼이후 야학 활동을 하며 공부와 상담을 병행하는 중 같은 야학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였다. 이는 Carter와 McGoldrick(1989)이 제안한 재혼가족의 생활주기인 첫 번째 단계로 새로운 관계의 시작 단계였다. 연구 참여자의 둘째아들은 연구 참여자가 재혼을 하였고, 동생도 낳았다는 사실에 자신이 갈 곳이 없다는 두려움을 경험하였고, 연구 참여자는 재혼가족을 생각하며 둘째아들을 받아들이며 함께 살아야하는가를 고민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죄책감을 느꼈다. 이러한 정서적 긴장과정은 재혼가족과 새로운 유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다루어져야 한다(성정현, 여지영, 우국희, 최승희, 2004). 이러한 과정을 지금의 남편은 두 개의 가족체계 내에서 겪는 갈등을 다루어 연구 참여자와 자녀, 그리고 둘째아들을 포함한 확대가족과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등(한재희 등, 2013) 재혼가족의 생활주기 단계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와 둘째아들의 갈등이 완화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가족의 건강성을 확보하여 유지할 수 있었다.

둘째아들이 구치소에 있다는 전화가 왔다. 남편과 함께 구치소에 가서 둘째아들을 보았고, 나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내 잘못된 것 같았다. 그런데 재혼을 한 내 상황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었다. 남편은 둘째를 데리고 오자고 먼저 이야기 해주었다. 내가 재혼한 가족이 신경이 쓰여 고민한다는 것을 알고 남편이 내 입장에서 나만을 생각해 준 것이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 그 사랑으로 나와 둘째아들의 관계는 회복 되어질 수 있었다. 남편은 지금도 나에게 ‘좋은 사람’이다.

둘째아들은 전남편과 갈등이 있었고, 범죄소년이 되자 아들임을 거부당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왔지만, 새로운 가족 안에서도 갈등과 혼란의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와 남편은 둘째아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이에 둘째아들은 연구 참여자의 관심을 받으며 건강한 가족관계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가족의 정서적이고 균형적인 상호관계로 기능하여 둘째아들과 연구 참여자가 함께 동반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Minuchin, 1974). 다시 말해서 남편이 연구 참여자를 동

반자로서 존중하고 지지해 줌으로서 가능하였고, 둘째아들과 갈등이 있을 때 온전히 연구 참여자의 울타리가 되어주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였다.

학교 밖 이야기

학교 밖. 연구 참여자의 가정은 어려서 부모의 이혼으로 해체되었기 때문에, 기능적인 가정환경에서 부모와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길러주신 노스님과 관계를 조손가족에 비유하였다. 절에서 자라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스님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함께 살면서 스님들의 삶을 너무 잘 알아서 오는 괴리감에 대한 갈등 등으로 옆 학교 이사장의 비리척결운동에 가담하였다. 이는 학교에서 문제 학생으로 주목받아 학교를 떠나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를 떠난 후 무작정 친구가 있는 지역으로 온 나는 물어 물어 친구를 찾아갔다. 그렇게 친구가 다니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6개월을 일하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실은 내가 생각했던 삶과는 달랐다. 지금 생각해 보면 늘 공부하시는 모습과 사람들에게 존경 받으시는 노스님의 영향으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가치가 생긴 것은 아닐까? 내적 갈등이 심했었던 것이다. 이런 갈등 속에서 나는 공장에서 나가기 위해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했다. 공부를 하려고 찾은 곳이 바로 야학이었다.

연구 참여자는 어려서부터 절에서 자라면서 노스님께 가르침을 받은 교육 경험이 학습되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삶의 방향성을 갖게 하였다. 그 때문에 야학 봉사와 같은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시작하였고, 지금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통해 연구자는 Dewey(1938)가 말하는 경험의 특징 중 하나인 연속선상에서 보는 경험으로서 경험은 다른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며 또 다른 경험을 이끌어낸다는 견해를 확인하였다. 또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사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사이를 오가며 학습하고 늘 확장되어 가는 사회적 환경에서도 그렇게 경험사이를 오가며 학습한다는(Clandinin & Connelly, 2000)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만남. 구치소에 둘째아들이 들어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연구 참여자는 감정의 혼란 속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왜냐하면 재혼한 남편의 원 가족에게 어떻게 둘째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며, 새로 태어난 아기와 행복을 꿈꾸었던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좌절감과 이런 좌절감이 둘째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 등 복합적인 감정들로 괴로웠던 것이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뿐 아니라 둘째아들도 전남편에게 버림받고, 엄마는 재혼하고 여동생도 태어났다고 하니 엄마인 연구 참여자에게도 갈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많이 울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에게 구치소는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심리적으로 공존하는 복잡한 장소로서 상호작용하는 공간

이었다.

둘째아들을 면회하러 구치소에 갔다. 가까머리가 된 둘째아들이 저쪽에서 걸어 들어오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가까이 온 둘째아들의 얼굴에는 버짐이 피어서 윤기도 없고 거칠어진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아빠는 전화해도 안 받고, 연락도 하지 말래……. 나 있을 곳은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가 나 데려가면 안 돼?”

무책임. 연구 참여자는 둘째아들이 범죄와 관련되어 소년원과 구치소를 들락거리게 된 것에 대해 부모인 자신이 무책임 하였다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이혼 후 아이들과 헤어져 홀로 살아가면서 왕래를 할 수 없는 연구 참여자의 상황이었을 지라도 아들을 돌볼 수 없는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뿐 아니라 부모가 서로 왕래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남편의 가정폭력과 부모의 이혼에 의한 엄마와의 헤어짐 등 정서적인 무관심과 관련 있다. 또한 가정 밖으로 돌면서 심리적·물질적으로 상대적인 빈곤함이 불러온 어른들의 무책임 때문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전남편과 이혼 후 아이들과 헤어진 후의 일이라 전해 들었다. 둘째아들이 범죄 소년이 되었던 것은 ‘육’하는 마음에 자동차에 불을 질러 소년원에 다녀오면서부터다. 그날 둘째아들이 아빠한테 맞고 나와 속이 상한 상태였다고 한다.

죄인. 연구 참여자는 이혼을 통해 자녀와 함께 할 수 없었던 시간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컸다. 거기에다가 재혼을 통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고 있었던 중에 둘째아들이 구치소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의 힘들었을 그 기간에 대한 미안함과 ‘좀 잘 살아주지’라는 마음이 분노와 혼돈가운데서 ‘내가 죄인이다’로 자신을 탓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둘째아들이 소년원을 갔다 와서 학교에 복학을 했었다. 농업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는 날, 기숙사에서 사용할 짐들을 가지고 학교 기숙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를 맞아주시는 기숙사 사감선생님이 둘째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아보였다. 사감선생님은 “어머니 이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생각 잘 해보세요. 애는 아~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나는 둘째아들이 이런 취급을 받아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 내가 죄인이니까…….

어쩌면 부모는 이러한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시선이 부모를 더 위축되게 하여 자녀를 포기하게하거나 무관심으로 대하는 등 자녀와 더 멀어지게 할 수 도 있는 것이다.

판결. 둘째아들의 재판을 통한 판사의 판결을 경험하면서 연구 참여자는 자녀에게 부모의 존재 유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아직은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

자인 자녀는 이들을 책임지고 맡아줄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 연구 참여자와 남편이 둘째 아들을 판사 앞에서 책임지고 맡아주지 않았다면 둘째아들은 소년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둘째아들을 책임지고 맡아줄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둘째아들을 판사는 사회로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아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의 변화는 책임지고 돌봐줄 보호자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재판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판사의 호통소리가 들렸다. 판사는 부모들한테 대놓고 호통을 심하게 치고 있었다. 판사가 내 얼굴을 보고 물었다.

“음~아이 아빠가 아이를 거부 했네요?”

“네”

“엄마는 아이를 데려갈 마음이 있습니까?” “네.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는 일이 뭐니까?” “야학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제적으로 어떠십니까? 재혼한 남편은 돈은 잘 벌니까?”

“남편은 현직 공무원이고,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습니다.”

“재혼 가정인데 이 아이를 데려갔을 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남편은 청소년과 관련한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아이를 위해서 직장을 다시 다녀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판사는 둘째아들에게 일어나라고 했다.

“너 이거, 이거, 이거 많네? 몇 건이야? 휴대폰, 지갑 절도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저를 데려간다고 하니까 엄마 말 잘 들었습니다.”

다행이 보호관찰 2년에 야간 전화 6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습관. Dewey(1938)에 의한 내러티브 탐구의 핵심용어인 경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항상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맥락 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으로만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개인에게 있어 경험은 개인적인 경험과 사회적인 경험 둘 다 항상 존재한다(Clandinin & Connelly, 2000). 둘째아들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맥락의 경험은 과거-현재-미래에 대하여 사고하면서 동시에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 사이를 오가며 학습하고, 확장되어가는 사회적 환경에서도 경험 사이를 오가면서 학습되어 지금의 삶으로 이어진다. 즉 둘째아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회적 관계와 맥락은 둘째아들의 비행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폰 팔이나 절도처럼 불법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둘째아들이 야간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고 절도와 폰 팔이 등의 비행을 일삼는 삶의 태도로 연결되어 연구 참여자와의 갈등을 심각하게 하였다.

그리고 둘째아들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쳤

던 것은 가족요인 속에 포함되는 변인들로 가족의 상호작용과 정서적인 분위기였다. 둘째 아들은 가족구성원과 정서적 유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족만이 가질 수 있는 공유의 안락함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받지 못했다. 때문에 둘째아들은 고립감, 우울, 비행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비행 행동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전희란, 2009). 즉, 부모의 양육 및 훈육방식과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도, 부모의 감독 및 통제,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 방식 등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족변인이다(Tolan, Cromwell, & Brosswell, 1986).

둘째아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둘째아들의 몸에 익숙해진 일상의 습관이 나와의 갈등을 커지게 하였다. 정말 힘들었다. 그걸 끊기가……. 거기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기 어려우니 삶이 변하지 않았다. 새 삶으로 살아지지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내 갈등은 점점 심해졌다. 이전에 만나던 아이들과 만남이 계속 연결되다보니 삶의 방식이 마치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듯 했다.

성장이야기

깨달음. 연구 참여자는 미래의 발전을 위해 공부를 하던 중 「새로운 나를 여는 열쇠」를 읽으며 자신을 성찰하였고, 지난 삶을 반성하여 변화하고자 했다.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경험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와 감정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하려 했다. 즉, 자신의 삶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였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하며 살고자 하였던 것이다.

모자원에서 시작된 공부는 계속 이어져 둘째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쯤에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 하면서 상담 공부도 하게 되었다. 당시 읽었던 「새로운 나를 여는 열쇠」라는 책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지나온 삶에서 나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사라졌던 나를 찾아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전남편이 재결합을 원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냈다. 내 삶을 소중히 여겨 회복하고자 다시 야학에서 교사로 봉사하면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였다. 이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했던 나의 삶이 후에 나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 수 있었다.

야학. 야학은 연구 참여자의 살아온 삶이었고, 살아갈 삶으로 이해되어진다. 야학은 연구 참여자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공간이자 장소였다. 연구 참여자가 학교와 삶의 터전을 떠나 다시 살아가기 위해 공부를 시작한 장소였고, 결혼을 하고 잠시 떠나온 곳이었지만, 이혼 이후 삶을 유지하며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던 공간이었다. 또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내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둘째아들과 더불어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었고 희망적인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했던 공간이다.

야학에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는 오래지 않아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나를 눈여겨 보셨던 야학 선생님이 “국어를 좋아하고 잘하니까 야학에서 국어를 가르쳐 봐!” 이렇게 나의 야학교사활동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야학은 내 삶과 함께 해온 동반자였다. 내 삶이 힘들 때마다 기쁨, 열정, 보람, 자랑스러움, 뿌듯함 등을 경험하게 해 준 것이 야학활동이었다. 이렇게 손을 놓지 않았던 야학활동이 지금 내 가족에게 평온함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 되었다.

한마디. 연구 참여자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마디는 야학활동에 대한 인정의 말이었다. 이는 둘째아들이 구치소에서 범죄소년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만난 변호사가 전해준 지지의 한마디였다. 이 한마디로 다시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 해왔던 야학봉사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야학봉사를 통해 둘째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에게 변호사의 한마디는 사회적인 지지였다. 이러한 사회적인 지지가 연구 참여자가 살아가고자 했던 가치 있는 삶의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었다.

나는 둘째아들의 재판에 가면서 야학활동을 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 아이도 못 챙기는데 누구를 가르

쳐..... 그래~야학을 때려 치자, 그래 그러자’하고 마음에 결정을 내리고 재판장에 갔다. 재판을 받기 전에 변호사를 먼저 만났다. 변호사가 물었다.

“저.....뭐하세요? 직장 다니세요?”

“아니요. 야학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어요.”

나는 대답을 하면서도 욕을 먹을 줄 알았다. ‘당신 아이나 잘 키우지, 당신 아이는 이 모양인데.....’라면서 비난할 줄 알았다.

“어머! 어머니 잘하셨어요.”

“그만 하려고 하는데요?”

“왜 그걸 그만두세요? 아이에겐 좋은 모델이 필요해요!”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와 같이 해보세요.”

대면.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성찰하고 표현하는 자기체험을 통해 약함이나 결핍과 대면할 수 있었다(채기화, 2016). 이러한 대면의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는 범죄소년이 된 둘째아들을 대면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싶어 하는 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결핍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자기대면과 자기체험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는 자기를 이해할 수 있었고, 둘째아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둘째

아들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나는 둘째아들을 힘들어 했다. 둘째아들을 바라보면 너무 아파서 잘 바라볼 수 없었다. 잘 바라보려 해도 모든 상처들이 떠올라서 너무 힘들었다. 부인하고 싶었다. ‘내 아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너는 왜! 이렇게 밖에 살 수 없었던 거니?’

‘왜! 니 삶도 제대로 못살아~’

나는 어렵고 힘들어도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결과를 보여준 둘째아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랬던 내 마음이 바뀌었다.

‘그런 게 아니었구나! 너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준 내 탓이다.’

‘미안해’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둘째아들을 바라보았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둘째아들의 태도와 행동이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남편의 아낌없는 지지로 대면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는 이전에 모든 문제의 원인을 둘째아들에게 돌렸던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하였다.

바람(wish) 이야기

시선.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에서 사고를 친 문제아 혹은 나쁜 아이들이라고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그들의 부모 또한 문제부모로

바라본다. 또한 ‘자녀의 잘못은 부모 탓’이라는 전통적 관념과 합쳐져서 부모 자신이 ‘무엇인가 그동안 잘못해 왔다고 느끼게 되는 등 지나친 죄책감 등은 부모를 더 위축되게 하였다(김계현 등, 2009). 이러한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은 학교 밖 청소년이나 그들의 부모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 하였고, 그 이야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나 부모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변화되기를 바라게 되었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부모들은 자꾸 숨는다. 사회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라는 것에 대한 편견이 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두 부모에게서 그 문제를 찾는다. 이혼은 했는지, 재혼은 했는지, 경제력이 있는지, 가정폭력은 있었는지 등 보이는 것만을 보고 부모를 비난하였다. 그래서 부모를 문제의 대상으로 접근하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로서 이런 시선은 부모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입니다.”라고 나를 소개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질 수준이 낮을 거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다.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부딪치는 것이 이러한 편견의 시선이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이었고, 동시에 자녀를 둔 부모로서 직

접 비난의 말이나 시선이 부모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못지않게 심리적·물질적인 상대적 빈곤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이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가 그들의 자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비난이나 문제의 원인으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란다.

포기.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이 커지면 자포자기하는 경향이 커지며, 누군가가 자신의 역할을 대신해 주기를 희망하고, 개입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많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2). 연구 참여자 또한 이러한 복잡한 감정으로 고민하고 갈등을 경험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학교 밖 청소년자녀 함께 하면서 도움을 지원하는 자녀는 위기상황에 놓이지 않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것을 보았다. 이에 연구 참여자가 바라는 것은 학교를 떠난 청소년 자녀의 부모가 자녀에게 ‘포기’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곁을 지켜주는 것이 자녀에게는 큰 힘이라는 것을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경험과 센터에서 지켜보았던 학교 밖 청소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예전에 구치소에서 만난 변호사가 “어머니가 성공모델이 되 바라”했을 때는 자신이 없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과정을 견디어내니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를 보면 어찌되었든 자녀 곁에서 자녀를 도우려고 애 쓰는 부모는 자

녀와 함께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요즘 많이 보았다. 그래서 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를 만나면 자주 하는 말이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다.

“어머님, 아버님 아이들 포기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포기하고 싶으셔도 아이한테는 포기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가 죄인처럼 뒤에 숨어있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를 바란다. 부모가 이해받고 인정받아 긍정적인 힘을 키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랬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야기는 ‘가족이야기’가 경험의 배경으로 자리하면서 ‘학교 밖 이야기’의 경험이 ‘성장이야기’의 경험을 이끌어 냈고, ‘바람이야기’로 이어졌듯이 연구 참여자의 삶의 역사는 개인적인 경험과 사회적인 경험이 서로 관계 지어지고, 그 맥락 내에서 서로 얹여 존재하였다.

2.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삶과 경험의 의미

연구 참여자의 삶과 경험은 시간적으로 유의미한 이야기들로 ‘가족이야기’, ‘학교 밖 이야기’, ‘성장이야기’, ‘바람(wish)이야기’ 간의 연계성을 찾아 재구성되었고, 재구성된 이야기는 다시 배열하여 ‘자기성찰에 의한 깨달음’, ‘반성적 사고를 통한 개선’, ‘경험의 연속선상에서의 성장’으로 그 의미를 도출하였다(Polkinghorne, 1988).

자기성찰에 의한 깨달음

자기성찰은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거나 자신의 생각, 감정 등을 탐색해 봄으로써 변화를 얻는 과정이다(Mahoney, 1997). 따라서 과거 삶의 경험은 현재의 삶을 만들었고 현재의 삶은 미래를 형성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성찰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변화과정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가능성이나 실현가능성을 타진하는 일이다.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성찰에 의한 깨달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성찰에 의한 자기이해에 대한 깨달음이다. 연구 참여자의 자기성찰은 자신의 삶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주체적인 관여가 동시에 요청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문제의식 없이 수용한 다양한 삶의 모습과 원칙, 관계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는 과정(오현선, 2007)의 깨달음이었다.

둘째, 자기대면을 통한 자녀이해에 대한 깨달음이다. 연구 참여자의 비판적인 자기성찰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의 과정이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희망 위에서 자기와 대면하게(오현선, 2007)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인 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 자신의 태도나 감정을 돌아보기도 보다는 부모자신도 모르게 자녀에게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양육태도 및 방식에 대한 조언을 얻어 표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신효미, 신미, 유미숙, 2014), 이는 연구 참여자가 자기대면을 하지 못했을 때의 경험과 일치한다. 이에 반해 연구 참여자의 대면에 의한 자기성찰은 둘째아들의 욕구를 민감

하게 인식하여 상호작용하게 했고, 둘째아들에게 온정적이며 수용적인 양육태도(신효미, 유미숙, 2015)로 변화하게 했다.

셋째, 자기성찰이 가능한 내적 힘을 얻도록 부모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지지만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자원으로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행동이나 행위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지지는 남편이나 가족, 친구, 이웃 등의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제공되는 도움을 말하는 것이다(이운정, 조궁호, 2002).

연구 참여자를 이해해주고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아서 연구 참여자에게 큰 힘이 돼 주는 남편에게서 받고 있는 지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노력이었고(McCurdy, 1997), 연구 참여자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의 사회적 지지는 둘째아들과의 문제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에서 완충적인 작용을 했고(유우영, 최진아, 이숙, 1998), 연구 참여자가 주위로부터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여 심리적으로 존중과 배려를 받고 있다는 위안과 위로(유지영, 김명자, 1996)가 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삶의 경험을 성찰하여 현재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내적 힘을 제공해 주는 지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반성적 사고를 통한 개선

반성적 사고는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하여 지식을 획득하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사고방법(박준영, 2009)으로 듀이에 의해 소개

된 개념이다. 즉, 반성적 사고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반추하고, 평가하여 새로운 지식과 연결시키는 과정을 포함하므로 일상생활을 통해 끊임없이 일어나는 학습의 핵심으로 자신의 행동이나 신념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다양하게 분석함으로써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정계숙, 노진형, 2006). 따라서 부모에게 양육자로서의 실천적 지식이나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는 반성적사고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의 경험은 이를 뒷받침해주었다.

이러한 반성적 사고는 둘째아들의 해결되지 않은 습관으로 인한 과거경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였고, 비판적인 사고로 둘째아들을 대하는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이렇듯 반성적 사고는 폭 넓은 학습과 경험의 재구조화를 통한 자신의 전반적인 삶과 역할의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적용 범위가 넓을 수 있다(정계숙, 노진형, 2006).

이렇게 연구 참여자의 반성적 사고를 통한 경험의 과정은 Dewey가 말하는 선 경험을 통해서 행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반성 후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수정하여 재구성하는(하은옥, 강문숙, 이경철, 김석우, 2013) 것과 같이 행동의 개선으로 이어진다.

경험의 연속선상에서의 성장

Dewey에게 있어서 성장은 인간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한 것이다(권정선, 김희용, 2015). 경험에 있어서 연속의 원리란 모든

경험은 앞에서 이루어진 경험에서 무엇인가를 받아가지는 동시에, 뒤따르는 경험의 질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형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Dewey, 1938). 모든 경험은 경험을 하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시키며 또한 그 변화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뒤따르는 경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연구 참여자의 이전 경험은 연구 참여자와 같은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을 이해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둘째아들이 범조 소년이 되어 함께 지내게 될 때도 둘째아들과의 갈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변화할 수 있게 하였다. 즉, 과거와 현재 사이에 어떤 습관이 변화된 연구 참여자와 둘째아들은 그 이전의 연구 참여자와 둘째아들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을 지닌 연구 참여자와 둘째아들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Dewey, 1938).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와 둘째아들은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 습관의 변화를 가져와 과거의 경험에 현재에 의미를 가질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현재의 경험이 미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새로운 습관을 개발하고 기존의 습관들은 제거된다(이준수, 2009). 그리고 가족 결속력과 이해력의 증가로 둘째아들은 자신을 거부했던 친 부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가족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삶의 회복은 이전 상태로의 단순한 복귀가아니라 그것이 성공적으로 지나온 불균형과 저항의 상태에 의해 풍부해졌기 때문이다(이준수, 2009).

삶은 발달이고, 성장하는 것은 곧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연구 참여자가 살아오면서 환경에 끊임없이 자신을 재적응시켜 살아가며 경험을 연속해가는 과정이 바로 연구 참여자의 '삶'이고 성장이다(송도선, 2014).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삶의 경험이야기이며, 자기이야기로 어머니 자신의 삶에서 경험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이러한 경험이 학교를 떠난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알아 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인 연구 참여자의 삶의 경험 이야기를 연구자는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조각들을 만났다. 그 이야기 조각들은 '고립, 학교 밖, 야학, 가족, 헤어짐, 깨달음, 좋은 사람, 만남, 무책임, 죄인, 한마디, 판결, 습관, 대면, 시선, 포기'였다. 이 이야기 조각들은 주제들 간의 연계성을 찾아 '가족이야기', '학교 밖 이야기', '성장이야기', '바람(wish)이야기'로 다시 재구성 되었다.

이렇게 재구성 된 이야기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삶을 조망하는 내러티브 경험으로 상황과 삶 전체의 맥락에서 성찰-반성-성장의 경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른 의미를 도출 할 수 있었다. 도출되어진 의미는 '자기성찰에 의한 깨달음', '반성적 사고를 통한 개선', '경험의 연속선상에서의 성장'이다. 결론적으로 부모와 학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부모효능감을 높여줌으

로써, 간접적으로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듯이(김세리, 이수현, 구예진, 이강이, 2016), 부모의 적극적인 중재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보호요인이 된다(오정아, 김영희, 김정운, 2014).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부모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중재하면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과 같은 사회 적응에 보호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가 학교를 떠난 청소년 자녀의 지지자로서 역할을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냈다(김영희, 최보영, 이인희, 2013; 노기호, 2014)

따라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에게는 상담과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삶의 경험을 통한 자기성찰로 깨달음을 얻어 자기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에게 지원되는 상담과 교육이 자기성찰에 그치지 않고 반성적인 사고로 행동의 개선이 이루어져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이 다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의 연속선상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조모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조모임은 정신적인 상처의 치유와 모임 원 간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각자의 경험을 소통함으로써 얻어지는 성찰과 정보를 얻는데 그 목적

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조모임을 통해서 각자의 이야기로 자신 삶의 의미나 중요성을 정의하고 창조해 나갈 수 있으리라(박민자, 2010)는 기대를 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김광웅, 문수경, 2005)나 민주적인 양육태도가 이들의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처럼(김정희, 안귀여루, 2013), 연구 참여자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을 때 둘째아들과의 갈등이 완화되면서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어 사회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청소년의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와 인정, 존중, 이해, 위로 등 마음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하며,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움직임은 부모자녀 관계의 회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이를 위해 자녀와 부모가 함께 개선되고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박영신, 김의철, 2004). 따라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와 그 자녀가 관계의 개선을 위해 개입해야 하는 방법은 청소년 개인 뿐 아니라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져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로 하여금 청소년들에게 격려와 인정을 전달하는 방법, 효과적으로 경청하는 기술, 발달단계에 따른 의사소통의 방법, 적절한 통제와 관심을 유지하는 양육태도 등을 교육하거나 훈련시켜야 함이 요구되는 것이다(임정화, 전종설, 2012).

한편, 진로에서 삶의 경험은 개인의 미래행동에 동기로 기능하고, 현재 자기에 대해 가진 견해에 평가적이고 해석적인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Gysbers, Heppner, & Johnson,

1998). 그러므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 또한 자녀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등 학교를 떠난 청소년 또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감(권혜수, 서정아, 정찬석, 2007)이 있듯이 부모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학교를 떠나게 되면 무엇보다도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학력단절로 인한 고용시장 진입의 한계로 적절한 직업 및 취업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청년실업자나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증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노기호, 2014). 이에 따라 학교를 떠난 청소년은 사회진출과 관련된 욕구와 진로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김영희 등, 2013).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는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 삶의 진로를 계획하는 능력과 진로의식이 어떠한지(Gysbers et al., 1998), 부모 자신의 삶에서 진로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자녀의 진로문제를 어떻게 대하며 상호작용했는지, 그 결과 자녀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학교를 떠난 청소년 자녀의 진로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줄 수 있는 역할이 특히 부모에게 요구된다. 왜냐하면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도 적절한 진로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성공적으로 사회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금명자 등, 2008). 이는 연구 참여자가 관심을 갖고 둘째아들이 선택한 진로를 존중하여 칭찬과 격려와 지지를 보내 둘째아들의 진로동기를 높이고(박현미, 장석진, 2013), 자립의지

를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다(송지현, 정소희, 2014). 따라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가 어떻게 진로지도할 것인가를 위한 진로교육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전체 삶의 경험을 조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위기 청소년에 대한 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져도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부모 또는 보호자 대상의 상담과 부모 및 가족생활 관계의 교육 등이 이루어지도록 법적제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노기호, 2014)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의해 의도적으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를 연구 참여자로 표본 추출하여 선정한 것이 연구의 목적을 위한 특성이자 제한점이 며,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자녀로 둔 모든 어머니에게 일반화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4). 2014년 학업중단 예방지원 방안. 서울: 교육부.
- 권정선, 김희용 (2015). 듀이 경험철학에 나타난 교육목적으로서 성장의 의미 재탐구. 교육철학연구, 37(3), 1-25.
- 권혜수, 서정아, 정찬석 (2007). 대안학교와 소년보호교육기관 청소년의 학교 밖 경험비교: 개념도 방법론을 통하여. 상담학연구, 8(2), 657-674.
- 금명자, 주영아, 이자영, 김태성, 김상수, 신현수 (2008).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적응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35-655.
- 김계현, 김동일, 김봉환, 김창대, 김혜숙, 남상인, 천성문 (2009).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서울: 학지사.
- 김광웅, 문수경 (2005). 부모-청소년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연구 -Bronfenbrenner의 관점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3(1), 71-84.
- 김세리, 이수현, 구예진, 이강이 (2016). 학부모 학교 참여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3(4), 139-154.
-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경기도: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희, 최보영, 이인희 (2013).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욕구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4), 1-29.
- 김재엽, 장용언, 민지아 (2011).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7), 209-234.
- 김정희, 안귀여루 (2013).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4), 823-836.
- 남미애 (2006).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사회적 지원방안. 사회과학논문집, 24(2), 147-196.

- 노기호 (2014).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법률의 제정 방향과 과제. *교육법학 연구*, 26(3), 79-103.
- 류소영 (2014). 빈곤한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대한 내러티브탐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민자 (2010). 문제해결을 위한 이야기치료. *열린정신인문학연구*, 10(2), 103-127.
- 박영신, 김의철 (2004).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 학생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87-115.
- 박준영 (2009). John Dewey의 반성적 사고와 교육. *교육사상연구*, 23(3), 273-290.
- 박현미, 장석진 (2013). 가족지지와 청소년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1), 1-21.
- 성정현, 여지영, 우국희, 최승희 (2004). *가족복지론*. 서울: 양서원.
- 손영화 (2016).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도선 (2014). 듀이의 성장이론에 담긴 평생 교육 이념. *교육사상연구*, 28(1), 187-206.
- 송지현, 정소희 (2014). 청소년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7(1), 32-58.
- 신효미, 신미, 유미숙 (2014).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기성찰, 자기존중감 및 부모역할만족 간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7(4), 439-452.
- 신효미, 유미숙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기성찰, 부모역할 만족도 및 양육태도 간의 관계. *가족과 문화*, 27(1), 117-151.
- 양혜원, 전명희, 김희수 (2014). 부모이혼에 대한 아동기 자녀의 경험-지역사회 복지관 이혼가족 자녀 집단 프로그램 참여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2(2), 173-204.
- 염지숙 (2002). 교육연구에서 내러티브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1), 119-140.
- 염지숙 (2003). 신입교수의 일과 삶: 교수되기 의 의미. *열린유아교육연구*, 8(2), 135-160.
- 오승근 (2009).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국가 정책의 비판적 고찰: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6(4), 1-21.
- 오정아, 김영희, 김정운 (2014). 청소년의학업중도포기 과정. *청소년학연구*, 21(5), 141-168.
- 오현선 (2007). 자기대면을 통한 자기성찰교육. *신학사상*, 137, 265-288.
- 유우영, 최진아, 이숙 (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유지영, 김명자 (1996). 중년기 부인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51-165.
- 이윤정, 조궁호 (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사회적 지지와 부모 역할 만족도와와의 관계. *인간이해*, 23, 99-122.
- 이주연, 정제영 (2015).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간의 '힘겨루기'에 대한 질적 연구. *교육학연구*, 53(3),

- 89-118.
- 이준수 (2009). 듀이의 인격형성에서 습관과 성장의 의미. *교육사상연구*, 23(1), 1-17.
- 임정화, 전종철 (2012).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이 남·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8), 169-190.
- 전희란 (2009). 그룹음악치료를 통한 과잉-분리 가정 청소년의 소외감 감소에 관한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6(2), 71-100.
- 정계숙, 노진형 (2006).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반성의 부모교육을 위한함의. *열린유아 교육연구*, 11(4), 79-105.
- 정은 (2009). 가족상담: 모델과 사례. 서울: 창지사.
- 조용환 (1999). 질적연구의 동향과 과제. *교육 인류학연구*, 2(1), 91-121.
- 주소희 (2015). 이혼가정자녀의 부모이혼경험과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49, 97-131.
- 채기화 (2016). 교사의 정서적 자기체험, 자기이해의 필요성: 교사-학생 관계의 측면에서. *교육의 이론과 실천*, 21(1), 71-93.
- 하은옥, 강문숙, 이경철, 김석우 (2013). 예비교사들의 수행평가 경험에 대한 반성적사고 분석. *사고개발*, 9(1), 137-159.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2).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한국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46, 34-49.
- 한재희, 김영희, 김용태, 서진숙, 송정아, 신혜중, 양유성, 임윤희, 장진경, 최규련, 최은영 (2013). *부부 및 가족상담(한국상담학회 상담학총서5)*. 서울: 학지사.
- 허승희 (1993).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사회 정서적 고립척도개발. *초등교육연구*, 7(1), 19-32.
- Carter, E., & McGoldrick, M. (1989).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 (2nd ed.). Boston, MA: Allyn and Baon.
- Clandinin, D. J. (2011).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방법론. 강현석, 소경희, 박민정, 박세원, 박창언, 염지숙, 이근호, 장사형, 조덕주(역). 서울: 교육과학사. (원본 발간일, 2007)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7). 내러티브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 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박민정(역). 서울: 교육과학사. (원본 발간일, 2000)
- Creswell, J. W. (2010)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역). 서울: 학지사. (원본 발간일, 2007)
- Dewey, J.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Glesne, C. (2008). *질적 연구자 되기*. 안혜준(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원본 발간일, 2006)
- Gysbers, N. C., Heppner, M., & Johnson, J. A. (2003). *진로상담의 실제*. 김봉환(역). 서울: 학지사. (원본 발간일, 1998)
- Mahoney, M. J. (1997). *Brief moments and enduring effects: Reflections on time and timing in psychotherapy*. Solutions, strategies, narratives. New York: Brunner/Mazel.
- McCurdy, K. (1997).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A transactional analysis of parenting in disadvantaged families*(mothers, home visita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Northwestern University. Evanston IL.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Polkinghorne, D. E. (2009). 내려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 인문과학연구의 새 지평. 강현석, 이영효, 최인자, 김소희, 홍은숙, 강웅경(역). 서울: 학지사. (원본 발간일, 1988)
- Tolan, P. H., Cromwell, R. E., & Brasswell, M. (1986). *Family therapy with delinquents*.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Family process*, 25(4), 619-649.
- 1 차원고접수 : 2017. 04. 10.
수정원고접수 : 2017. 10. 10.
최종게재결정 : 2017. 11. 21.

The Life and Experience of a Mother Whose Adolescent Child Dropped Out of School

Son, Yeon-a

Son, Eun-young

Department of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ory of a mother, whose child had dropped out of school. It aims to understand the mother's life and experience, and what they mean to her. A narrative type of inquiry was chosen, and it allowed access to her experience from a holistic perspective. The participant in this study was informed of the goal and necessity of this study, and she agreed voluntarily to offer her story as data. The story was reorganized by topic congruence, as she described her life as a mother whose child had left school and 're-told' her experience. The reconstructed story showed a repetitive pattern which consists of introspection, self-reflection, and internal growth. As a result, this study provided support for (Roh Ki-ho, 2014), which argu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formulate a legally binding system to provide counseling sessions for parents or guardians and educational programs in which families including dropout adolescent children can participate for improving family relationships. This study also discusses the need for the parents whose children dropped out of school to properly intervene in their children's lives not only for the emotional well-being but also for their future careers.

Keywords: adolescent child dropped out of school,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self-examination, growth